

9

영광과 수치의 솔로몬

Chapter

왕상 10:14~11:13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177장 (내 이름 아시죠)

오늘 배울



말씀

1.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 받을 상급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다.
2. 엄청난 타락도 처음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됨을 압니다.

마음 열기





말씀을 이해하기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소원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경우 장수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써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다수의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건축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지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거할 아름다운 궁전과 이스라엘 각 지역에 국고성과 병거성 그리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습니다. 군사와 행정, 무역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태평성대 가운데 엄청난 국가적 부를 쌓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과 인생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지혜가 천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천하 모든 왕들이 놀랄 만큼 큰 재산과 영광 그리고 쾌락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으며 제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좇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사후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잠 22:4~5)

By humility and the fear of the LORD Are riches and honor and life, Thorns and snares are in the way of the perverse; He who guards his soul will be far from them (Pr 22:4~5)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신 17:16~17)

(왕상 10:26~27, 11:1~3)

(고전 10:11~12)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열왕기상 11장 1~26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1절과 2절을 볼 때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3절과 4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3. 9~10절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4. 14절과 23절 그리고 26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대적이 주위에 자꾸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5. 엄청난 타락도 사실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큰 시험은 경계하고 대비하지만 오히려 작은 시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를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결국은 회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요즈음 나의 신앙생활을 점점 움아매는 죄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가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방관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경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사람이 만든 우상



등산을 하다 배가 너무 아팠다.



급하게 불일을 보고 민망해서 돌로 덮었다.



하산하는 길에 보니 돌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거기에 돌을 올리고 소원을 빌고 있었다.



헉!! 아주머니는 알고 있을까? 그 밑에...

사람들은 돼지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면서도 맛있게 요리해 먹습니다. 그러면서 고사를 지낼 땐 미련한 돼지머리에 넙죽 절을 합니다.

왜 이런 앞뒤가 안맞는 일을 할까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소원을 빕니다.

성경에선 이런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어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 계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 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족하기도 하는구나 (사 44:15)

카나리아의 잃어버린 목소리

어떤 사람이 노랫소리가 유달리 아름다운 카나리아를 한 마리 갖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카나리아를 집에만 가두어 두는 것은 너무 한다 싶어 그 사람은 바깥 나무 사이 새장에 카나리아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참새들이 카나리아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그 새장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 끝날 즈음 카나리아는 자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참새들의 단조로운 소리만을 낼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의 교제,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세상 이방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그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은 상실하고 말겠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